

『三國遺事』〈惠通降龍〉 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

박다원*

Ⅱ 차례 Ⅱ

- I. 문제제기
- II. 설화의 구성과 공간설정의 방법
- III. 공간의 양상과 인물의 대응 방법
- IV. 공간과 인물관계를 통해 본 『삼국유사』 용설화의 구성 원리
- V. 결론

【국문초록】

『삼국유사』의 <혜통항룡> 설화에서 중심인물인 혜통과 용은 각자 그들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을 감행한다. 혜통의 문제는 잘 해결되는 데 비해 용의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는다. 각 인물의 행보는 차이가 있으나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들은 동일한 공간 안에서 서로 대치되어 밀어내고 밀려나간다. 밀어내는 인물은 문제를 해결하고 밀리는 인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각 인물들의 문제 해결을 통해 설화에 제시된 공간은 A, B, C로 나타났다. A공간은 인물이 공간을 지배하는 경우이다. 이 공간에서는 한 인물의 위상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다른 인물의 위상은 격하되었다. 인물이 세력을 확보하는 경우인 B공간은 공간이 인물을 지배하여 두 인물 모두의 위상이 확보되기는 했으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C공간에서는 두 인물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삼국유사』 <혜통항룡>을 통해 C공간이 이상적임을 드러내 주었다. 이를 『삼국유사』 용설화 전반에 적용시켜 보았다. 일연은 『삼국유사』 용설화를 통해 C공간 즉, 상층과 하층이 불교신앙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

* 영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을 제시하고 있었다.

주제어 : 혜통, 교룡, 독룡, 웅신, 공간, 이동, 문제해결

I. 문제제기

『삼국유사』 <혜통항룡> 설화에는 고승인 혜통과 용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설화에서 용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이다. 혜통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용에게 불살계를 주어 악독을 멈추게 한다. 설화를 표면적으로만 살핀다면 기존의 논의들¹⁾에서처럼 불교에 복속하는 용, 즉 토속신앙이 불교와 습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혜통과 용이 거듭 대결구도를 벌인다는 점에서 토속신앙의 반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도 보인다. 그런데 거듭되는 대결의 구도에만 집중하여 다루었을 뿐 대결이 펼쳐지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미약했다고 보인다.

설화에서 중심인물인 혜통과 용은 각자 그들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1) 외래의 종교인 불교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는 신라사회의 현실과 타협이 불가피한 것이며 신라불교설화의 성격도 이 범주 안에서 형성되었다고 한 황폐강의 논의는 이 설화가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黃泚江, 『新羅佛教說話研究』, 一志社, 1975, p.235.), 서대석은 용을 천신족의 이주 이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했던 토착세력으로 보고 있다.(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pp.421-425.), 신태수는 혜통항룡 설화를 통해 불교신앙을 표방하는 세력과 토속신앙을 표방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 결국에는 불교신앙의 승리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태수, 『『三國遺事』 <神呪篇>을 통해 본 土俗信仰의 向方』,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pp. 401-428.), 박진태는 혜통이 교룡을 불살계를 주어 조복시키는 것은 퇴치에서 융합으로 대응방식을 바꾸는 경우라고 보았다.(박진태, 『『삼국유사』의 설화를 통해 본 <토착-외래>의 관계유형』, 『국어교육』 134, 한국어교육학회, 2011, p.254.)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에서 같은 논의들이 보이고 있다.

위해 이동을 감행한다. 혜통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이에 비해 용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물의 행보는 다르나 만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들이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 각 인물은 동일한 장소에 시간차를 두고 당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왜 그들은 각기 시간차를 두고 하나의 공간에 모이게 되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인물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을 감행한다고 했으니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인물이 공간에 먼저 당도할 것이고 뒤에 공간에 당도한 자는 문제 해결이 앞선 인물보다 덜 시급하니 시간차가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각 인물이 지닌 문제의 심각성이 다르기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라고 규정내릴 수 있을까? 아니다.

두 인물은 동일한 공간 안에서 서로 대치되어 밀어내고 밀려나간다. 밀어내고 밀려나간다는 입장에서 우세와 열세를 판가름 할 수 있으나 현상적인 부분만으로는 쉬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 우세와 열세라는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면적인 의미를 살펴야 한다. 먼저 당도한 인물은 공간에서 내몰리기 일쑤이며 후에 공간으로 당도한 인물은 먼저 공간으로 당도한 인물을 밀어내기 일쑤이다. 밀고 밀려나는 것은 공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공간이 인물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때문에 우리는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²⁾ 즉, 시간차는 공간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고 우세와 열세를 판가름하는 것은 다른 아닌 공간이다.

공간은 지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설화에서는 당나라와 신라라는 지리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선학들의 연구에서 알

2) 공간이 인물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인물과, 상생·상극의 입장에선 個物이기도 하고 운동성을 지닌 생명의 주체이기도 하다.(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영웅의 관계』,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2002, p.285.)는 공간에 운동성에 논의를 주목할 만하다.

수 있듯이 설화는 불교적 성격이 강하다. 당나라와 신라라는 지리적 공간의 제시는 불교신앙의 전과 통로라는 점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사회적 공간을 제시한다. 사회적 공간은 당나라 황실과 신라 왕실, 정공의 집으로 대표되는 상층의 공간과 문인림, 기장산으로 대표되는 하층의 공간이다. 인물들은 상층과 하층의 공간에서 대응 태도를 달리한다. 상층의 공간에서 그들은 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하층의 공간에서는 세력을 휘두르기에 바쁘다. 때문에 공간의 차이에서 오는 인물의 대응 태도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혜통항룡> 설화는 대표적인 『삼국유사』 용설화의 하나이다. 이 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가 모색된다면 공간과 인물 관계를 통한 『삼국유사』 전반의 용설화 유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의 운동성에 주목하면 공간 안에 내재된 지리적 사회적 관계망을 읽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공간의 관계망을 통해 『삼국유사』 용설화가 지닌 참된 의미의 고찰까지 가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 설화의 구성과 공간설정의 방법

<혜통항룡> 설화는 고승인 혜통과 용 두 인물의 문제 해결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고승인 혜통은 일곱 번의 문제에 봉착한다. 세 번의 문제는 혜통 개인의 문제이다. 나머지 네 번의 문제는 혜통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간을 둘러싼 문제로 혜통은 요청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비해 용은 네 번의 문제에 봉착하고 이 문제들은 모두 용 개인의 문제였다. 그의 문제는 두 번의 해결과 두 번의 해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구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 줄거리

는 하나의 사건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일련번호를 붙이면 다음과 같다.

(자료1) <혜통항룡>³⁾

- 1) 혜통이 숙인으로 있을 때, 하루는 집의 동쪽 시냇가에서 놀아다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뼈를 동산 안에 버렸다.
- 2) 이튿날 새벽 그 뼈가 없어졌으므로 찢자국을 따라 가 보니 뼈는 옛날에 살던 굴속으로 돌아가 다섯 마리의 새끼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 3) 혜통이 바라보고 한참이나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감탄하고 망설이다가 속세를 버리고 승려가 되었다.
- 4) 혜통이 당나라에 가서 무외삼장에게 배우기를 청했으나 신라 사람으로 감히 불법을 닦을 그릇이 될 수 없다하여 거절당한다.
- 5) 혜통은 물러나지 않고 3년 동안 열심히 섬겼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는다.
- 6) 애가 탄 혜통은 뜰에 서서 머리에 화로를 이고 있다가 이마가 터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냈다.
- 7) 무외삼장이 소리를 듣고 와 화로를 치우고 터진 곳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신비스런 주문을 외우자 상처가 아물어 전과 같이 되었으나 왕 자 무늬의 흉터가 생겼다.
- 8) 이로 인해 왕화상이라 불리고 무외 삼장이 혜통의 재질을 높이 사 심법의 비결을 전해주었다.
- 9) 당나라 황실의 공주가 병이 나서 고종이 무외삼장에게 치료를 청하니 삼장이 혜통을 천거했다.
- 10) 혜통이 명을 받들어 별실에 거처하면서 흰콩 한 말을 은그릇에 담고 주문을 외워 흰 갑옷을 입은 신병으로 변하게 해 병마와 싸우게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 11) 또다시 검은콩 한 말을 금으로 된 그릇에 담고 주문을 외우자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로 변했다.

3) 一然, 『三國遺事』, <惠通降龍> 卷第五 神呪 第六.

- 12) 이들을 흰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더불어 싸우게 하여 병마를 쫓으니 교룡이 뛰어나와 병이 나았다.
- 13) 정공이 사신으로 당나라에 갔다가 혜통을 만나 혜통이 쫓아낸 독룡이 문잉림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 14) 혜통은 정공과 함께 인덕 2년 을축에 본국으로 돌아와 용을 내쫓았다.
- 15) 용이 정공을 원망하여 정공의 문밖에 있는 버드나무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정공은 버드나무를 매우 사랑했다.
- 16) 효소왕이 신문왕의 무덤을 만들고자 장사지낼 길을 내는데 버드나무가 가로 막고 있어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였으나 정공이 이를 저지했다.
- 17) 왕이 노하여 정공의 목을 베어 죽이고 그의 집을 흙으로 묻어버렸다.
- 18)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정공과 친한 혜통을 죽이고자 하여 병서를 소집하여 왕망사로 가게 했다.
- 19) 혜통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지붕으로 올라가 사기병과 붉은색 먹을 묻힌 붓을 들고 병의 목에 한 획을 긋자 병사들의 목에 붉은 획이 그어졌다.
- 20) 놀란 병사들이 황망히 도망하여 왕의 앞에 달려 나아가자 왕이 혜통의 신통력은 사람의 힘으로 도모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 21) 왕녀가 병이 나자 혜통을 불러 치료하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 22) 혜통은 정공의 억울함에 대해 호소하고 왕은 후회하여 정공의 처자에 게는 죄를 면하게 하고 혜통을 국사로 삼았다.
- 23) 용은 정공에게 원한을 갚고 기장산으로 가 곰신이 되어 해독을 심하게 끼쳐 백성들을 괴롭혔다.
- 24) 혜통이 그곳으로 가 용을 타이르고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주었더니 용의 해가 없어졌다.

<혜통항룡> 설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혜통이 용을 굴복시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굴복시키게 하여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살계를 내려 용을 교화시킨다. 용은 저항 없이 혜통의 불살계를 받아 그

동안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앞서 용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혜통에게 한 저항들은 간곳없이 고분고분 혜통의 불살계를 받아 들여 해를 끼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혜통 또한 진작 불살계를 용에게 주었더라면 둘은 갈등을 벌이지 않았으며 용에게나 혜통에게나 체력을 소진하는 일이 없었을 터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유 없이 괴로움을 당해야 했던 문잉림과 기장산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정공은 목이 베여 죽임을 당하고 집까지 땅 속에 묻히게 되었다.

혜통과 용의 움직임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유가 없다면 서로 체력적인 소모 없이 우세한 인물이 열세한 인물을 제압하면 될 것이다. 당장 제압하지 못함은 둘의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를 좀 더 살피기 위해 혜통과 용의 문제를 도식화 해보기로 한다. 각 인물이 가진 문제를 파악하면 인물의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난다. 혜통은 개인적인 문제와 공간의 요청 문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용은 개인적인 문제 이므로 개인적 문제로 제시한다.

〈표 1〉

혜통의 문제		용의 문제
개인적 문제	공간 요청의 문제	개인적 문제
깨달음에 무지		
무외삼장의 비법 전수 저지		
	당나라 공주의 치병	당나라 공주와 지속적 거주
	문잉림에서 해를 끼치는 용을 처단	문잉림 지속 거주
죽음에 직면		정공에게 품은 원한을 갚고자 함
	신라 왕녀의 치병	
	기장산에서 해를 끼치는 용을 처단	기장산 지속 거주

혜통의 개인적 문제는 1) - 2)와 같다. 혜통은 승려가 되기 전 거리낌 없이 살아있는 생물인 수달을 죽였으나 수달의 뼈가 자신의 새끼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3)은 혜통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승려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4)에서는 승려가 되는 것만으로 모든 깨달음을 깨우치는 것이 어려움을 알고 당나라의 무외삼장에게 배우기를 청한 모습이 나타난다. 인물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공간을 이동한다. 처음 당나라 무외삼장의 거처에서 거절당한 혜통은 굴하지 않고 5)처럼 3년 동안 열심히 섬겼다. 그래도 안 되자 그는 6)에서와 같이 처절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는 처절한 움직임을 통해 이마가 터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냈다. 불교에서 자내증(自內證)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드디어 그가 얻게 된다.⁴⁾ 7) - 8)처럼 무외삼장은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그의 이마 상처를 주문을 외워 낫게 해주고 심법의 비결을 전해준다. 혜통의 처절한 움직임을 통해 어려웠던 문제는 드디어 해결의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혜통의 세 번째 개인적 문제는 18)에서 비롯된다. 정공이 왕의 명을 거역하자, 왕실은 정공을 죽여 버리고 집 또한 물어버린다. 그리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정공과 친분이 두터운 혜통을 죽이고자 한다. 혜통은 19)와 같이 지붕에 올라 너무도 간단히 병사들을 내 쫓아 버린다. 두 번째 문제 해결과는 사뭇 다르게 문제 해결 움직임의 강도가 매우 미약하다.

세 번의 개인적 문제 해결 시 움직임의 강도는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강했다. 강렬함은 어려운 문제 해결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강렬했던 두 번째 문제 해결의

4) 자내증은 개인적 신비체험의 세계이다. 이것은 말이나 문자로 전달 할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의 영역이다. 깨닫지 못한 중생은 이러한 신비체험의 비밀세계를 알 수 없다. (이범교, 『밀교와 한국의 문화유적』, 민족사, 2008, p.19.)는 내용과 같이 혜통은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 깨달음을 신비체험을 통해 깨우친 것이다.

움직임을 통해 혜통은 많은 능력을 구비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 움직임의 강도에서 보여 지는 혜통의 모습은 영역 통과 의례⁵⁾의 한 모습이다. 혹독한 영역의 통과 의례 과정을 거치게 되자 그는 무외삼장에게 심법의 비결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는 의례를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간 요청에 의한 문제들은 쉬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혜통의 공간 요청에 의한 문제들은 대부분 용의 개인적 문제와 직결되고 그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맞서게 된다는 데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긴다. 먼저 혜통은 9)에서와 같이 무외삼장의 천거를 통해 당나라 황실로 입성하게 된다. 공간의 요청은 당나라 공주의 치병이다. 12)를 통해 공주병의 근원이 교통임을 알 수 있다. 혜통은 당나라 공주의 치병을 위해 10)과 같이 한다. 10)의 움직임의 강도로는 교통을 쫓아 낼 수 없었다. 11)처럼 검은 병사를 만들어 흰 병사와 힘을 합쳐 싸우게 하자 드디어 교통을 쫓아 내게 된다. 혜통의 문제 발생 시 움직임의 강도는 개인적 문제의 두 번째 보다는 미약했으나 공간의 요청에 대한 문제 해결 시에도 움직임의 강도를 강하게 했다. 10) - 11)은 이 사실을 잘 반영해 준다. 혜통의 생각으로는 10)의 강도만으로도 교통을 없앨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교통의 힘이 미약하지 않았던 것이다. 10) - 11)의 강도로 겨우 교통을 공간 밖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한다.

5) 경계는 특정 집단이 의식을 통해 특정 지점에 설치한 것이다. 이것을 소유하는 집단은 만약 낯선 자가 이것을 넘어 밭을 들여놓는다면 세속적 영역의 사람이 신성한 숲이나 사찰에 침범하는 것과 같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영역 통과 의례를 거쳐야만 그곳으로 편입될 수 있다(A. 반게넵 전경수 옮김,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pp.45-57.)라고 한 A. 반게넵의 논의가 좋은 참고가 된다. <혜통항룡> 설화에서 무외삼장이 혜통의 배움에 대한 열의를 잇달아 거절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룡이 공간에서 밀려남은 거주지의 상실이다. 그가 언제부터 당나라 황실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주가 병을 얻어 괴로워한 사실만은 9)를 통해 안다. 그렇다면 교룡은 당나라 황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비록 병마라는 몰아내야하는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가깝다.⁶⁾ 가까운 거리의 인물이 서로를 등지고 있는 형국이다. 혜통의 문제 해결과정을 살펴본다. 혜통은 영역의 통과의를 거쳐야만 그 공간에의 편입이 인정되었다. 영역의 통과의례는 모든 인물이 거쳐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인식한다면 용 또한 병마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영역의 통과의례를 거쳐 당나라 황실에 편입된 인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편입이 인정될 당시에는 용과 당나라 황실 또한 서로 대치되지 않고 조화로웠을 터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서로 대치하게 한 무언가가 공간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서로 대치할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 공간 요청으로 혜통이 외부에서 공간으로 유입된다. 혜통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불법을 구하기 위해 건너온 인물이다. 결국 그는 영역의 통과의례를 통해 고승이 된다. 그의 신분을 고려한다면 그는 불교신앙⁷⁾을 상징한다고 하겠

6) 교룡은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작용하고 있다(신태수, 위의 논문, 2005, pp. 407-425.)라고 한 논의가 좋은 참고가 된다. 교룡을 토속 신앙의 하나로 상정하고 신주편의 세 설화를 통해 토속 신앙이 불교 신앙에 복속 될 것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다.

7) 불교는 밀교(密敎)와 현교(顯敎)로 나뉘는 데 『아함경』에 의하면 석가모니불은 현교를 중시했다. 제자들에게 세속의 주술을 행하는 것을 엄밀히 금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파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자연재해는 신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승려나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결국 석가모니불로 하여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해결방법인 주술의 사용을 인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밀교의 형성과정이다.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주술을 허용한 이후, 주문의 신비로운 힘에 의해 재앙을 물리치는 비법이 불교교단에 일반화되었다.(이범교, 위의 책, 2008, pp. 30-33.) 혜통이 당나라 공주의 병마를 낫게 한 것은 바로 밀교의 비법인

다. 불교신앙으로 대표되는 그가 용을 공간에서 몰아낸다. 공간 내부는 치병의 능력을 인정하여 불교신앙을 인정했다. 반면 교룡은 공간에서 배척당하고 내몰렸다. 당나라 황실과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배척당하지 않는다. 교룡은 배척당해야 하는 다른 무언가로 대표된다고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 해결과정으로 교룡으로 대표되는 무언가를 밝혀낼 수 없다. 다른 문제 해결 방법들도 살핀다.

교룡은 당나라 황실에서 내몰려졌다.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신라의 문잉림이다. 13)에서 정공이 알려주기 이전까지 혜통은 교룡을 쫓아낸 공으로 당나라 황실의 인정을 받아 당나라에 머무른다. 교룡 또한 정공이 사실을 발설하기 전까지 문잉림에서 새롭게 거주지를 마련했다. 정공만 아니었다면 혜통도 용도 모두 각자의 공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⁸⁾ 그러나 정공은 혜통에게 당나라를 떠나 신라 문잉림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14)와 같이 정공과 혜통은 귀국하여 문잉림으로 가 독룡을 쫓아낸다. 혜통은 또 다시 문잉림이라는 공간에서 용을 몰아낸다. 용은 또 내몰린다. 문잉림은 혜통에 의해 평화로워진다.

용은 양심을 품고 정공의 집 앞 버드나무로 변한다. 문잉림에서 정공의 집 앞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또한 정공으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다. 결국 16)처럼 정공은 왕명을 거역한다. 17)에서와 같이 정공은 제거된

을 알 수 있다.

8) 혜통은 불법을 습득하기 위해 신라에서 당나라로 이동을 감행한 인물이다. 그가 무외 삼장에게 심법의 비결을 전수 받았다는 것은 그의 불법이 완성되었음을 뜻한다. 때문에 정공이 아니더라도 혜통은 신라로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공으로 인해 그의 입국이 촉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교룡은 이 지상에서 오직 혜통 한 사람만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혜통이 당나라에 머무는 동안에 신라로 피신한 것이다’(서대석, 위의 책, 2001, p.423.)라고 한 부분이 좋은 참조가 된다.

다. 정공의 집에서 용은 기존 문제 해결과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바 즉,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아닌 왕실을 이용한 것이다. 반면 18)에서처럼 혜통은 죽을 위기에 놓인다. 용이 문제 해결을 하자 혜통이 문제에 직면한다. 혜통은 의연하다. 19)처럼 왕망사 지붕에 올라가 주술로 병사들을 내쫓는다. 20)에서와 같이 왕실은 혜통 죽이기를 포기한다. 혜통이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왕실과 대척중이다. 20)은 왕녀의 병으로 혜통이 왕실과 결합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혜통은 왕녀의 치병을 통해 국사가 되고 정공의 누명도 풀어준다.

혜통이 신라 왕실과 결합하자 23)에서와 같이 용은 기장산으로 가 곰신이 되어 백성들에게 해독을 끼친다. 24)는 혜통이 기장산이라는 공간에 다시 한 번 용과 대면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혜통은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기장산에서는 용을 내몰지 않는다. 몰고 내몰리기를 반복하던 그들은 기장산에서 단합한다. 단합의 방법은 불살계이다. 결국 불교신앙에 포용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⁹⁾ 용이 불교신앙에 포용되자 그는 더 이상 다른 거점을 찾아 공간을 이동할 필요가 없다. 기장산에서 해독을 멈추고 살면 된다. 그렇다면 이전까지의 대립은 용이 불교신앙에 포용되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혜통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살펴본다면 용은 혜통 이전에 영역의 통과와례를 거쳐 공간에 확고한 자리를 매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혜통을 위시한 불교신앙이 공간을 점령하게 되면서 용은 자신의 공간 확보를 위해 계속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¹⁰⁾

9) 『삼국유사』의 <어산불영> 설화에서 수로왕과 독룡의 대치 상황을 부처가 해결한 것에 대해 불교설화가 건국신화를 밀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2004.)라고 한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10) 설화에서 용은 교룡, 독룡, 웅신 등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로 그려진다. 설화의 문제와 문제 해결 구조를 통해 이는 불교신앙의 건지에서 용을 인식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혜통과 용의 문제 해결을 통한 설화구조를 살폈다. <혜통항룡>의 설화 구조는 문제와 문제 해결과정을 그리고 있었다. 혜통은 당나라 고승인 무외삼장의 거쳐, 당나라 황실, 문잉림, 신라 왕실, 기장산에서 각각 영역의 통과의를 거쳐 인정을 받게 된다. 즉, 문제 해결의 과정은 영역의 통과와 레이고 문제 해결은 곧 그 영역으로의 편입으로 볼 수 있다. 당나라 황실과, 문잉림, 정공의 집, 기장산은 용과 혜통의 문제가 서로 맞물리는 공간이다. 당나라 황실, 문잉림에서는 용이 배치되고 혜통이 공간을 확보한다. 여기서는 공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인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공간 내부의 의식에 변화를 주고 있으므로 인물이 중심이 된 공간이라고 하겠다.

용의 개인적 문제인 정공에 대한 복수는 정공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용은 정공의 집에서 정공을 제거하는데 성공한다. 용이 문제를 해결하자 혜통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용의 문제 해결이 곧 혜통의 문제 발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정공의 집이라는 공간은 용의 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 한 곳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혜통은 왕망사라는 공간에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또한 그곳에서 신라왕실의 요청을 받는다. 왕망사는 혜통에게 떨어진 위상을 찾아주는 공간임과 동시에 신라 왕실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간이다. 용은 정공의 집에서 혜통은 왕망사에서 각각의 힘을 확보한다. 공간이 인물의 힘을 확보하게 만드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때문에 이곳은 공간이 인물을 지배한다. 기장산은 두 인물이 서로 화합했다는 점에서 공간과 인물이 모두 중심이 되는 곳이다. 설화의 구조를 통해 공간이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남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공간의 설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살펴야 하겠다.

Ⅲ. 공간의 양상과 인물의 대응 방법

설화는 문제와 문제의 해결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인물은 공간을 이동하면서 문제 해결을 꾀했다.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역의 통과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때문에 공간을 먼저 점하고 있는 인물은 뒤에 공간에 진입한 인물보다 먼저 영역의 통과의를 거쳐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다. 설화의 구성을 통해 인물이 서로 대면하거나 관련되어 있던 공간은 세 개의 공간으로 설정됨을 알았다. 인물이 중심이 된 경우, 공간이 중심이 된 경우, 공간과 인물이 모두 중심이 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의 공간이 왜 나타나게 된 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공간의 양상이 왜 나타나게 된 지에 대한 배경 고찰이 필요하다. 공간의 세 가지 양상은 사회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당나라 무외삼장의 거쳐, 당나라 황실, 문인림, 정공의 집, 왕망사, 신라왕실, 기장산 등은 그 공간을 점하고 있는 인물을 알려준다. 당나라 무외삼장은 불교세력을, 당나라 황실은 당나라의 상층의 세력을, 문인림과 기장산에는 백성이 고통당하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하층의 세력을 그리고 정공과 신라 왕실은 신라 상층 세력을 각각 표상해 주고 있다. 때문에 공간의 양상에 따른 인물의 대응 태도를 사회 상황과 결부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논의의 편의상 인물이 중심이 된 경우는 A공간, 공간이 중심이 된 경우는 B공간, 인물과 공간이 모두 중심이 되는 경우는 C공간이라 칭하기로 한다. 공간은 단순한 배경으로서의 공간일 수도 있다. 인물이 자신의 의지로 공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설화에서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일 수 없다. 인물이 수용되거나 힘을 형성하는 것 등이 모두 공간을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은 인간사회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11)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 공간에는 물질과 에너지 심지어는 동식물 생태계와 인간사회가 내포되어 있다(권오혁, 김남주, 김두환, 김창현, 김한준, 손정원, 『공간의 개념정의에 관한 온라인 토론』, 『공간과 사회』36,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p.259.)라고 한 논의가 참조가 된다.

먼저 A공간 인물의 구성은 상층과 하층을 아우른다. 상층은 다시 당나라 황실과 신라 왕실이 되는 데 득병¹²⁾을 이유로 해통에게 치병을 요청한다. 치병을 목적으로 해통이라는 인물은 상층이 거주하는 공간에 유입된다. 유입된 공간인 당나라 황실에서는 공주 병의 원인이 교통이었으므로 교통을 쫓아 보내자 병이 나았다. 신라 왕녀의 병은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해통이 당도하자 낫게 된다. 결국 상층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해통을 필요로 하여 해통이 그곳으로 간 것이며, 해통은 영역의 통과의례를 거쳐 인정을 받는다. 해통이 영역의 통과의례를 거쳐 진입한 곳은 다른 아닌 상층의 공간이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상층은 먼저 용으로 대표되는 무언가를 수용하였고, 뒤에 병마라고 매도하며 용을 처단하고자 한다.¹³⁾ 해통은 상층의 요구에 부합하여 용을 쫓아내고 상층의 인정을 받는다.

하층의 인물이 있는 곳은 문잉림과 기장산이다. 문잉림에서 교통은 독룡으로 비취진다. 상층 인물인 정공의 폭로는 문잉림이라는 공간의 요청을 대변해 준 것으로 보인다. 문잉림의 사람들이 직접 해통에게 찾아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하층의 인물이 당나라로 건너가는 것도 힘들거니와 승려 해통을 알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해통은 하층의 문제를 영역의 통과의례를 거쳐 해결함으로 그들에게 인정받는다.

B공간은 용과 해통이 각각 자신의 힘을 확보하는 곳이다. 해통이 힘을 키운 공간은 사찰이다. 해통이 승려임을 가만했을 때 승려가 사찰 내에 있

12) 병을 얻는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인간힘을 쓴다. 이 설화에서는 치병을 위해 해통이라는 고승을 요청한다. 그리고 고승은 요청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13)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용은 토속신앙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토속신앙인 용 또한 숭앙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역의 통과의례를 통해 신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을 때 힘이 증가할 수 있다¹⁴⁾는 것은 납득이 간다. 그런데 용은 정공의 집이다. 용은 정공과 왕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정공은 하층을 아우르는 신앙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인물이라는 추정을 해본다. 상층의 왕실은 문인림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정공은 그들의 고통을 혜통에게 전해준다. 반면 왕실은 하층에게 해독을 끼친 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혜통과 정공, 왕실과 용은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¹⁵⁾ 혜통은 문인림에서 하층 인물들의 인정을 받아 그들의 힘을 얻었으나 왕실과 용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놓인다. 하층과의 결합만으로는 높은 위상을 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혜통은 왕망사 지붕으로 올라가 주문으로 왕실 세력을 쫓아낸다. 이를 통해 신라의 상층 내부에서도 용을 옹호하는 세력과 혜통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고 하겠다. 정공의 죽음을 통해 용을 옹호하는 세력이 우세해졌다.

그런데 왕녀가 병이 나자 상층은 배척했던 혜통을 왕실로 불러들인다. 당나라 황실은 용을 쫓아내기 위해 혜통을 요청했다.¹⁶⁾ 신라 왕실도 마찬가지로 득병의 이유로 혜통을 요청한다. 왕실의 혜통 요청은 용과의 결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다.¹⁷⁾ 왕녀를 치병함으로 혜통은 국사가 되고 정공의 한 또한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 왕망사는 바로 혜통이 신라 왕실로

14) 불상을 모시고 불도(佛道)를 닦으며 교법을 펴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사찰은 불교신앙의 중심이라 하겠다. 때문에 승려는 사찰 안에서 세력이 확보될 수 있다.

15) 서로 이상이 동일하다면 대치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6) 용은 신라 왕실 즉, 상층의 세력에게 내물림을 당한다. 신라 왕실과 용의 관계를 통해 당나라 황실에서 용이 내물림을 당한 이유는 동맹관계의 절연으로 볼 수 있겠다. 동맹관계에 있을 때 용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동맹관계가 절연되는 순간 내물림의 대상이 된다.

17) 용은 정공의 집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통이 신라 왕실과 결합하자, 기장산으로 가 백성들에게 악독을 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공간이며 혜통 힘의 근원지 즉, 불교신앙의 근거지이다. 혜통은 당나라 황실, 신라 왕실에서 모두 치병이라는 영역의 통과의를 거쳐 인정받는다. 결국 상층과의 결합을 통해 용보다 우세한 위상을 점할 수 있었다.

B공간을 통해 정공은 혜통과 같은 뜻을 가진 밀교계 인물임을 알았다. 그는 혜통과는 다르게 왕실 세력 안에 있으면서 하층의 생활상까지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밀교가 상층뿐만 아니라 하층에까지 전파되기를 도모했다.¹⁸⁾ 용이 세력을 키운 정공의 집이라는 공간은 정공의 소유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상 왕실세력의 근거지의 하나로 보인다. 그 근거지를 필두로 왕실과 용은 깊이 결합되었다. 이를 타파하려는 정공은 미약한 힘으로 대항했다. 하지만 용과 왕실의 힘에 굴복당하고 말았다. 혜통은 정공을 통해 세력의 확장을 꾀하기 위해 왕망사로 이동한 것이다. 즉, 용은 왕실세력과 결합했을 때 힘을 얻고 혜통은 불교세력을 통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왕실 세력, 하층의 세력까지 아울러 힘을 가지게 된다.

C공간은 하층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혜통이 신라 왕실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국사로 삼아지자, 용은 기장산의 웅신이 되어 사람을 괴롭힌다. A공간과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다. A공간과 동일하게 대응하면 될 것인데, C공간은 용을 쫓아내지 않는다. 혜통은 다른 곳에서와는 다르게 C공간에 서만큼은 불살개로 용을 타이른다. 용 또한 반항하지 않는다. 결국 기장산이라는 공간은 두 인물의 결합을 이끄는 공간이 되었다.

A, B, C의 공간은 각각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순한 배경으로 쓰여 공간이 아니다. 공간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이 인물에 지배당하기도 하지만 인물에게 힘을 부여해 주기도 하고 두 인물을 모두 포용해

18) 정공이 당나라로 가 혜통으로 하여금 신라 문인들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주기도 한다. 각각의 공간을 살펴본 결과 공간이동을 거듭하면서 각 인물의 위상이 조금씩 차이가 생겼다. A공간에서 용은 한 없이 혜통에게 밀려나고 있다. 용의 밀려남은 위상의 추락으로 볼 수 있겠다. 반면 혜통의 위상은 한 단계씩 상승했다. 용이 힘을 얻은 정공의 집에서는 용이 문제를 해결하므로 다시금 위상을 높였다. 반대로 혜통의 위상은 떨어진다. 혜통은 왕망사로 이동하여 다시금 떨어진 위상을 회복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장소	당나라 황실	문잉림	정공의 집	왕망사	신라왕실	기장산
위 상 의 크 기	용						
	혜통						

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A공간에서 용의 위상은 추락하고, 혜통의 위상은 높아짐을 알았다. B공간에서는 용과 혜통 모두 위상이 높아졌다. C공간에서는 혜통의 위상은 높아지고 용 또한 위상이 절하되지 않았다. 이는 C공간이 모두를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용의 위상과 혜통의 위상이 반비례한 A공간은 상층의 공간과 하층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상층의 공간인 당나라 황실에서 용은 선주했던 인물이었다. 혜통의 공간 이동 경로를 통해 위상이 상승됨에 비추어 본다면 용 또한 혜통이 공간으로 유입되기 이전에는 상층과의 결합으로 인해 높은 위상을 점했을 것이다. 공

간이 용을 병마로 인식하자 그는 구축의 대상이 되었고, 그를 구축하기 위해 공간은 혜통을 공간으로 유입시킨다. 이렇게 본다면 A공간은 혜통 즉, 불교신앙인 밀교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하층의 공간은 문잉림이다. 혜통과 같은 의식을 지니고 있는 상층의 인물인 정공이 당나라 사신으로 가 혜통에게 문잉림에서 용의 해악을 알린다. 정공이 당나라에 있는 혜통에게 사실을 고했다는 것으로 문잉림¹⁹⁾이라는 공간 역시도 혜통을 필요로 했다고 하겠다. 교룡이 당나라 황실을 떠나 신라 문잉림이라는 토속신앙의 성소로 옮긴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용의 이동 또한 공간의 요청으로 본다면 용도 공간의 요청으로 그곳에 유입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독룡으로 간주되기 이전까지 그는 성소에서 숭앙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공간이 이제 그를 독룡이라 칭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이다. 갈망의 대상은 혜통으로 상징되는 불교신앙이다. 문잉림은 토속신앙을 밀어내고 불교신앙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A공간은 신라 상층과 하층의 이데올로기²⁰⁾를 드러내준다. 하지만 공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용과 혜통이 각 축을 벌일 수 있는 장을 열어줄 뿐이다. 공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인물은 공간에 의해 지배되어야 마땅한데, 인물은 공간에 지배됨이 없이 인물들 스스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혜통이 치병했으므로

19) 황룡사에는 많은 보물이 있는데, 황룡사 丈六尊像은 신라 삼보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장육존상을 만든 곳은 문잉림으로서 전통신앙의 성소라고 할 수 있다(김복순,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와 승려』, 민족사, 2002, pp.37-38.)라고 한 논의가 참조가 된다.

20) 인간, 사회 그리고 혹은 자연의 대상들에 대한 인식, 감정, 평가 및 그 대상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으로 구성된 관념체계로서, 다소간 일관된 논리적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그 기반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인식, 감정, 평가의 기준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柳泰建, 「이데올로기 개념의 대한 일고 - 형태학적 접근-」, 『동북아문화연구』1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5, pp.235-253.

용을 당나라 황실에서 몰아낼 수 있었으며 혜통으로 인해 문잉림²¹⁾ 사람들은 피해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서 정공의 역할 또한 적지 않다. 혜통이 없었더라면 A공간은 침체되고 암울한 공간이 된다. 때문에 A공간은 인물이 주도적인 역할 수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이 B공간으로 진입했다. A공간과는 다르게 B공간은 인물이 주도적이지 않다. B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용이나 혜통이나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본다면 B공간은 공간이 인물을 지배한다고 보인다.

용은 C공간인 기장산으로 간다. 그 곳에서는 웅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 혜통이 C공간인 기장산으로 간다. 하지만 그들은 충돌하지 않는다. 혜통이 불살계를 주어 웅신의 해악을 잠재운다. C공간인 기장산²²⁾은 두 인물의 화합을 보여준다. C공간은 인물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설화는 인물이 공간을 지배하는 경우, 공간이 인물을 지배하는 경우, 공간과 인물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를 A, B, C라는 공간을 통해 드러냈다. 그리고 모두 조화를 이룬 C공간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냈다고 보인다. 설화는 공간의 양상과 인물의 대응방법을 통해서 인물과 공간이 각각 서로의 우위에 서서 서로를 장악하는 구도를 보여주었는가 하

21)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면서 불교사찰이 자연신을 모시는 제장에 자리잡으면서 토착 신앙과 불교가 마찰을 하지만 결국 융화하여 독특한 가람을 형성했다(최광식, 『巫俗信仰이 韓國佛教에 끼친 影響 -山神閣과 長柵을 中心으로-』, 『白山學報』26, 白山學會, 1981, pp.47-77.)의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용은 당나라 황실에서의 세력을 잃고 자신의 근거지로 가 세력을 키우려고 했다고 보여진다.

22) 산은 신의 하강장소이며 또 돌아가는 곳이듯 인간에게도 도라갈 분향과 같은 곳이다(장정태, 『한국불교 소의 산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 3,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p.195.)의 논의가 좋은 참고가 된다. 용의 기장산으로의 이동은 같은 맥락에서 용이 자신의 신앙 근거지로 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면 인물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구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기장산²³⁾은 조화의 장소다. 기장산에서 용은 웅신²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토속신앙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나타내준다. 그렇다면 해룡은 설화에서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토속신앙을 포용하고 있다. 불교신앙을 통한 조화이지만 토속신앙²⁵⁾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거나 배척하지 않았다. 무력적인 방법 대신에 불살계를 통해 감화시켰다. 결국 이 설화의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통해 편찬자 일연은 불교신앙을 우리 인식에 자연스럽게 침투시킬 수 있었다고 하겠다.

23) 인도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도교와 만나 선불교를 만들었고 우리 민족문화권에 들어와서는 고유신앙으로 분류되는 산신신앙을 비롯 여타 신앙체계와 습합되면서 불교는 친숙하게 대중화되었다(장정태, 위의 논문, 2013. p.203.)라는 논의를 참조하면, 결국 기장산이라는 공간은 민간신앙의 중심지라고 보인다. 민간신앙의 중심지에서 불교신앙은 그들을 모두 포용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24) 토속신앙의 발전단계를 고려해 볼 때, 미분화된 복합적 신앙체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욕구에는 끝이 없으므로 끝이 없는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주는 산신이 등장하게 되며, 인간의 욕구가 변화함에 따라 산신 역시 수신도 되어야 하고 동물신도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하정룡, 『『三國遺事』所載山神 關聯記事와 그 性格에 대한 一考察』, 『종교와문화』 9,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3, p. 155.

25) 독룡은 당 황실의 공주를 병들게 했던 당의 교룡으로 해룡에게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해룡의 분국인 신라로 와서 악독한 것으로 앙갚음을 하였던 외래 독룡이다(金鎮煥, 『龍神思想에 관한 考察 -三國遺事 中心-』, 『東國思想』 18, 東國大學校 佛教大學, 1985, p. 57.)라고 하여 용을 외래의 용으로 본 논의가 있다. 용이 당나라의 독룡이라고 한다면 복수가 성공하면 회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용은 신라에 머무르면서 불살계를 받고 악독을 멈추었기에 토속신앙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IV.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통해 본 『삼국유사』 용설화의 구성 원리

『삼국유사』 <혜통항룡> 설화를 공간과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설화는 세 가지의 공간 양상을 통해 이상적인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었다. 불교신앙이 외래종교라는 거부감을 설화를 통해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 설화가 불교의 포교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통해서 『삼국유사』 용설화²⁶⁾ 전반을 살핀다면 용설화 구성원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설화 자료²⁷⁾에서 A공간이 두드러지는 자료는 <원성대왕>, <수로부인>²⁸⁾이다. A와 B공간이 두드러지는 작품은 <처용랑망해사>다. B공간이 두드러지는 자료는 <만파식적>이라 하겠다. C공간이 두드러진 자료는 <보양이목>이다. <어산불영>과 <진성여대왕거타지>는 A, B, C의 공간이 모두 제시되는 자료다. <혜통항룡> 설화는 C공간을 통해 공간과 인물의 조화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A공간이 두드러진 것과 B공간이 두드러진 것, C공간이 두드러진 자료를 살펴 <혜통항룡> 설화와 비교해 본다면 용설화 전반에 내재된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하겠다.²⁹⁾ A공간

26) 용이 단순한 모티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설화들을 살피고자 한다. 그래야 용설화 전반의 구성 원리를 살피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27) <만파식적>, <수로부인>, <원성대왕>, <처용랑 망해사>, <진성여대왕 거타지>, <황룡사 구층탑>, <어산불영>, <보양이목>, <혜통항룡> 총 9개의 자료이다.

28) <원성대왕>과 <수로부인>에서 공간은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 설화에서 중심은 인물이다. 때문에 A공간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29) 『삼국유사』 용설화 전반을 살피기 위해서는 수록된 모든 자료를 살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삼국유사』 용설화의 구성원리를 구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공간의 양상이 뚜렷하게 제시된 작품을 선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각 작품의 자세한

이 두드러진 자료는 원성대왕이다.

(자료2) <원성대왕>³⁰⁾

왕이 즉위한지 11년 올해 당나라 사자가 서울에 와서 한 달을 머물러 있다 돌아갔다. 다음날 두 여자가 내정에 와 자신들은 동지·청지에 사는 두 용의 아내라고 하면서 당나라 사자가 하서국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남편과 분황사 우물의 용을 물고기로 변하게 해 잡아갔다고 했다. 왕은 하양관으로 쫓아가서 연회를 열어주고 당나라 사신들을 꾸짖고 세 마리 용을 구해냈다.

<원성대왕> 설화에서 공간의 이동 경로를 보면 신라 경주 → 하양관(永川)이다. 서울은 신라의 수도 경주이다. 경주는 신라의 공간이므로 인물이 공간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나라 사신들은 1달여나 머무르면서 환대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이 길을 떠나고 하루 뒤 동지·청지에 사는 호국용의 부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을 구해달라고 한다. 공간이 인물을 지배했다면 경주라는 공간 안에서 당나라 사신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호국용을 물고기로 변하게 해 아무런 제지 없이 경주 땅을 벗어난다.

경주라는 사실만으로 당나라 사신들은 위세가 낮아져야 마땅한데 경주에서 당나라 사신들은 환대한 대접을 받는다. 때문에 공간이 인물을 지배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용 아내들의 하소연을 듣고 원성왕은 하양관 지금의 영천 서쪽인 하양의 관사로 이동한다. 여기서 공간의 이동도 공간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인물이 세 용을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이동하는 것이다. 왕은 하서국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호국용을 내놓으라고 한다. 용은 왕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둔다.

30) 一然, 『三國遺事』, <元聖大王> 紀異 第二.

에 의해 구출되어 기뻐하며 자신의 근거지인 경주로 간다. 당나라 사람들이 왕을 보고 감탄한다. A공간은 설화에서 왕의 위상은 올려주고 용의 위상은 한 없이 낮추었다.³¹⁾ <혜통항룡> 설화에서도 A의 공간은 혜통의 위상은 높아지고 용의 위상을 낮추었다. 또한 왕을 위시한 상층 세력의 위상만 두드러질 뿐 하층의 생활상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B공간이 두드러진 작품은 <만파식적> 설화이다. 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3) <만파식적>³²⁾

임오년 5월 초하루 해관 박숙청이 신문왕에게 동해바다 가운데 작은 산이 감은사 쪽으로 동동 떠서 왔다갔다 한다고 했다. 일관 김춘길이가 점을 치니 선대 부친인 문무왕은 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김유신공은 33천의 한 분으로 인간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다고 하면서 두 성인이 덕을 함께 해 성을 지키는 보물을 내리려 하니 해변으로 행차한다면 큰 보물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왕이 감은사로 행차하니 용 한 마리가 검은 옥대를 만들어 바친다. 또한 감은사 쪽으로 떠다니는 산에 있는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진다. 왕이 대궐로 돌아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병이 나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되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앉았다. 이 피리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만파식적> 설화의 공간이동은 경주 → 감은사 → 동해 해변가 → 감은

31) <원성대왕> 설화에서 원성대왕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옥망을 성취하고 있다. 용은 직접 왕의 도움을 요청하고, 왕의 명철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p.230.)는 것으로 왕은 더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고 이에 비해 용은 낮은 위상을 점함을 알 수 있다.

32) 一然, 『三國遺事』, <萬波息笛> 紀異 第二.

사 쪽의 작은 산 → 지립사 서쪽이다. 공간이동의 주체는 왕의 행렬이었다. 왕 행렬의 이동은 인물들의 의해 자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물들은 감은사 주변에 작은 산이 뚱뚱 떠왔다 갔다를 반복한다고 해 왕의 행렬을 그곳으로 가게끔 유도한다. 때문에 이는 공간에 의해 인물이 이동을 감행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왕은 감은사로 이동한다. 공간의 요청은 바로 선대 임금인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왕의 행렬은 용으로부터 검은 옥대를 받고 용의 말에 따라 대나무 또한 베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나라가 위협에 처해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B공간이 두드러진 설화에서는 공간이 인물을 장악한다. 인물은 공간에 의해 움직인다. 거대한 공간을 인물이 배척할 수 없으며 그저 따를 뿐이다. 하지만 인물들의 위상이 격하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다. 공간의 요청을 잘 따랐기에 얻은 보물로 더 높은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해동향류>에서도 B공간은 각각의 인물들이 힘을 키우는 공간이며 위상을 상승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왕 세력 즉, 상층의 위상만이 높아질 뿐 하층의 사람들은 제시되지 않아³³⁾ 조화롭지 못하다고 하겠다.

C공간이 두드러진 작품은 <보양이목> 설화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4) <보양이목>³⁴⁾

보양이 중국에서 불법을 전수 받아 돌아오는 길에 서해용왕이 그를 초대해 불경을 외우게 하고 금빛 가사 한 벌을 시주하고 겸하여 그의 아들 이목을 마쳤다. 그리고 삼국이 어지럽고 난리가 일어나 아직은 불법에 귀의하는 임금

33) <만파식적> 설화는 군신간의 조화와 합심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金相鉉,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한국사연구』 34, 한국사연구회, 1981, pp.1-27.)라고 한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B 공간은 상층의 결속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34) 一然, 『三國遺事』, <寶壤梨木> 義解 第五.

이 없지만 만일 이목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 작갑에 절을 짓고 거기에 거처하면 적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양은 이목과 본국으로 작갑사를 짓고 살았다. 얼마 되지 않아 태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작갑사에 전답을 바치고 운문선사라는 현판을 내려 가사의 신령스런 음덕을 받들게 했다. 어느 해 몹시 가뭄어 밭의 채소가 말라서 타 죽으므로 보양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했다. 천제가 이목이 소임이 아닌 일을 했다하여 이목을 죽이기 위해 사자를 보냈다. 보양이 이목을 숨기고 배나무를 가리켜 이목이라 했다. 사자는 배나무에게 벼락을 친 후 올라가 버렸다. 이목이 죽은 배나무를 어루만지니 다시 살아났다.

<보양이목> 설화의 공간 이동은 당나라 → 서해용궁 → 작갑사이다. 설화는 인물과 공간의 조화를 보여준다. 먼저 당나라에서 신라로 가기위해 길을 나섰던 보양은 서해용왕의 초청을 받아 서해용궁으로 가게 된다. 공간의 요청으로 그곳으로 가 불법을 외게 되는데 금빛 비단 가사와 아들 이목을 용왕으로부터 받는다. 인물이 공간을 이동했으나 공간의 지배를 받아 인물이 저지당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용왕은 오히려 용궁 안에서 보양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두 인물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다³⁵⁾고 하겠다. 보양은 이목과 신라로 가 작갑사를 세운다. 그들은 작갑사에서 가뭄으로 인해 천제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 부분을 조화를 이루지 못한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천제가 배나무를 죽이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는 데서 결국 조화를 이루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 설화는 불교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용과 왕건이 화합해 삼국을 통일하고 평안을

35) 이목과 보양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양이 창건한 사찰에 그의 명령을 받는 용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법의 대중화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이동철, 위의 책, p.166.)라는 논의를 참고하면 결국 불교신앙과 토속신앙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설화가 바로 <보양이목> 설화라고 하겠다.

얻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가뭄이라는 하층의 고층도 해결해주어 상층 하층을 모두 아우르는 조화를 이루었다. 때문에 <보양이목> 설화를 C공간이 두드러진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해통항룡> 설화 또한 보양이목과 마찬가지로 C공간을 부각하여 조화를 보여주고자 한 공통점을 지닌다.

용설화는 A공간이 두드러진 자료, B공간이 두드러진 자료, C공간이 두드러진 자료로 나뉘었다. 여러 공간이 혼재된 자료들도 보였다. A공간을 통해 인물이 공간을 지배하여 한 인물의 위상은 높아지고 다른 인물의 위상은 낮아지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위상이 낮아지니 다른 하나는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B공간을 통해서는 공간이 인물을 지배하여 인물들의 위상을 높여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공간 역시 상층 인물들에게만 국한되게 이루어졌다. 때문에 인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어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 없었다. C공간을 통해서는 인물과 공간이 서로에게 지배됨이 없이 조화로움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설화에서 C공간을 부각하고 있다. 조화로움을 모두가 바라는 이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삼국유사』 용설화를 통해 C공간 즉, 상층과 하층이 불교신앙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삼국유사』 용설화 전반을 공간과 인물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하여야 좀 더 폭넓은 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미비한 점이 있다. 미비점은 차후의 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V. 결론

『삼국유사』 <해통항룡>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혜통항룡> 설화는 문제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세 가지 공간을 제시했다. 인물이 중심이 되는 경우와, 공간이 중심이 되는 경우, 인물과 공간이 모두 중심이 되는 경우이다.

둘째, <혜통항룡> 설화에서 인물이 지배적인 A공간은 인물이 공간을 지배하여 한 인물의 위상을 높여주기는 했으나 다른 인물의 위상은 격하시켰다. 공간이 중심이 된 경우인 B공간은 공간이 인물을 지배하여 두 인물 모두의 위상이 확보되기는 했으나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은 되지 못했다. 인물과 공간이 모두 중심이 된 경우인 C공간은 두 인물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공간과 인물 각각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때문에 설화는 의도적으로 C공간을 부각시켜 C공간이 이상적 공간임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셋째, 『삼국유사』의 용설화는 A공간, B공간을 제시해 결국 C공간이 두 드러진 공간이 이상적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삼국유사』 용설화를 통해 C공간 즉, 상층과 하층이 불교신앙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一 然, 『三國遺事』.

金富軾, 『三國史記』.

2. 논문 및 단행본

김영태, 『新羅佛敎研究』, 民族文化史, 1987.

권오경, 김남주, 김두환, 김창현, 김한준, 손정원, 「공간의 개념정의에 관한 온라인 토론」, 『공간과 사회』36,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pp.246-273.

김복순,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2002.

金相鉉, 「萬波息笛說話의 形成과 意義」, 『한국사연구』34, 한국사연구회, 1981, pp.1-27.

金鎮煥, 「龍神思想에 관한 考察 -三國遺事 中心-」, 『東國思想』18, 東國大學校, 1985, pp.47-64.

박인희, 「『삼국유사』 신주편 연구」, 『石堂論叢』52,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2012, pp.1-32.

박진태, 「『삼국유사』의 설화를 통해 본 <토착-외래>의 관계유형」, 『국어교육』134, 2011, pp.243-265.

서대석, 『한국신화의연구』, 집문당, 2001.

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영웅의 관계」, 『국어국문학』131, 국어국문학회, 2002, pp.283-131.

_____, 「『三國遺事』〈神呪篇〉을 통해 본 土俗信仰의 向方」, 『국어국문학』140, 국어국문학회, 2005, pp.401-428.

이동철, 『한국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下, 민족사, 2005

_____, 『밀교와 한국의 문화유적』, 민족사, 2008.

이혜화, 『龍사상과 한국고전문학』, 깊은샘, 1992.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集文堂, 2004.

장정태, 「한국불교 속의 산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사연구』3,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pp.190-225.

- 정병삼, 『『삼국유사』 神呪편과 感通편의 이해』,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pp.1-25.
- 崔光植, 『巫俗信仰이 韓國佛敎에 끼친 影響 -山神閣과 長柱을 中心으로』, 『白山學報』26, 白山學會, 1981, pp.47-77.
- 최강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 최귀목, 『불교신격과 재래신격의 만남 -『三國遺事』를 출발점으로 삼은 試論-』, 『고전문학과교육』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pp.441-468.
- 하정룡, 『『三國遺事』 神呪第六 惠通降龍條와 新羅密敎』, 『회당학보』7, 회당학회, 2002, pp.192-220.
- , 『『三國遺事』 所載 山神 關聯記事와 그 性格에 對한 一考察』, 『종교와문화』9,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3, pp.137-161.
- 한예원, 『『삼국유사』의 불교설화를 통해 본 편찬의도』, 『동방한문연구』23, 동양한문학회, 2006, pp.57-91.
- 황폐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s and Characters in
“Hyetong Hangryong” from *Samguk Yusa*

Park, Da-Won

In “Hyetong Hangryong,” a folk tale in *Samguk Yusa*, the main characters Hyetong and a dragon leave their places in order to resolve their problems. While Hyetong’s problems are resolved well, the dragon’s problems are not easily resolved. They move in different directions, but they sometimes happen to meet. In the same space, they confront each other, pushing and being pushed. The one who pushes his opponent solves his problems, and the other one being pushed does not solve his problem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each of the characters, the spaces presented in the folk tale are classified into three parts: A, B and C. In A, the characters overpower the space. In this space, the status of one character rises while that of the other is downgraded. In B, where characters secure their power, the space overpowers the characters. The statuses of the two characters are secured, but fail to make harmony. However, in C, the two characters achieve harmony without their statuses being downgraded. The C space, after all, has turned out to be ideal through “Hyetong Hangryong” from *Samguk Yusa*. When this is applied to all the tales of dragons in *Samguk Yusa*, it is found that Ilyeon presents the C space, the space where high and low classes naturally achieve harmony based on Buddhism, through folk tales of dragons in *Samguk Yusa*.

Key Word : Hyetong, Gyoryong, Dokryong, bear god, space, movement, resolving

박다원

소속 : 영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 810-2110 / 011-9566-0410

전자우편 : sky333@ynu.ac.kr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

